



## 특허청 민원 크게 줄고 처리 빨라졌다!

민원신청 건수, 민원처리기간 및 만족도 모두 개선

특허청은 금년 상반기 동안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625건의 민원(고객의 소리)을 분석한 결과, 민원신청건수, 민원처리기간 및 민원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신청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 성과로 해석된다.

특허청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담당 직원이 전화로 정확한 민원내용을 파악하고(엔젤콜), 답변을 제공한 후에도 전화를 걸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는(해피콜) 「One-Stop 민원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민원신청건수는 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건(14.8%)이 감소하였다. 이는 그간 주요 불만사항이었던 전자출원의 이용 편리성이 개선된 효과라고 분석된다.

빨라진 민원처리기간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0.4일(12.9%)이 감소한 2.7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민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3일 이내 처리를 하여 일반 민원 보다 2배 이상 빠른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 만족도는 엔젤콜 및 해피콜 서비스의 운영으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2.3점(3.6%)이 상승한 65.7점으로 나타나, 38개 중앙부처 평균 민원만족도(65.2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심사·심판의 신속성을 기대·요구하는 민원'이 37건에 달하는 등 심사제도 및 심사절차를 잘 모르거나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인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시작하는 시기와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 등 출원인이 주로 궁금해 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울러 산업재산제도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돕는 안내책자를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강원도, 16개 광역 시도 중 상표권 최다 보유

100개 이상 상표권 보유한 기초단체도 11곳

16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록상표 포함) 중 가장 많은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제도 도입이후 2010년도 6월말 현재 지자체가 보유중인 상표권은 8,306건이고 이중 강원도가 1,186건으로 14.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 주민에게 신선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수욕장 등 좋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아울러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높은 인식에 따라 상표등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1,134건, 13.6%)와 전라남도(1,018건 12.2%)가 뒤를 이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표 등록에 적극 나서 11개 기초단체가 10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특허출원 하루만 빨랐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표·특허를 하루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같은 날짜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누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

특허청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11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 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강호근 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권리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특허 권리화 및 경영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

## 복잡한 심결문, 표준화로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

###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표준화 시대를 열다

법원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기재하는 ‘판결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는 ‘심결문’이 있다.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심판관에 따라 그 형식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특허심판의 당사자들이 심결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여러 차례의 ‘심결문 독회’를 통해 표준화가 필요한 심결문의 형식 및 심판종류별 주문기재 요령과 통일화가 필요한 용어·문구를 정리하여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히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은 우수 심결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심판종류 및 심결유형별로 심결문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결이유 중 대비판단 부분의 기재 요령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고품질 심결문 작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결문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분야 전담 심판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꿈을 키우는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

특허청,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40여 곳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 실시

특허청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통해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운영한다.

금년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단체가 추천한 전국의 아동시설과 도서·벽지 학교 등 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발명교육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동시설이나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전국 27개 보육원 등을 찾아가던 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40여 곳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29일 전남 영광군 아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된 첫 교육에서 학생들은 '태양빛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바람의 힘으로 빛을 내는 발전기' 등을 만들어 보면서,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발명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발명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아름이 지역아동센터 정은미 원장은 "교육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서 유익했고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구자성(홍농서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발명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라며 큰 호응을 보여 주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대상기관에는 방문교육 이후에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창의력증진 도서와 교구재가 제공되고 온라인 발명교육 콘텐츠도 지원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도서·벽지,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아울러 이들을 위한 발명캠프도 개최하여 발명교육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공 특허청

## 7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주)엠비아이
- 대 표 자 : 유혁
- 업태/종목 : 제조 / 도매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0-5
- 전화번호 : 043-274-9701
- 홈페이지주소 : www.mbigear.co.kr

